

## 모순의 굴: 사랑의 찬가

얼핏 들었던 스쳐 지나갔던 어떤 이야기 하나가 있다. 그저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였다 여겼기에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는 판단할 겨를도 없었다.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므로 결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 나는 침묵하고자 한다. 누가 그랬다 말했던 카더라 하에서 들렸던 소문들이 나를 이곳으로 향하게 했다. 사람들은 가끔 나를 향해 히죽거린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르겠다. 나는 그저 그들의 웃음소리에 화답하기 위해 미소를 쉼록거릴 뿐이다.

사각사각 들렸던 이야기의 시초는 아홉 살 이불 속의 어느 한 장면이다. 그 무렵 몸 안을 기어 다니는 열꽃은 매일 밤마다 나를 간지럽게 긁어댔고 참지 못한 가려움에 손톱은 붉은 피로 젖어갔다. 하지만 열꽃이 피어난 자리를 긁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기를 반복했다.

나는 해가 뜬 낮에는 툭툭 그곳을 때리거나 옷자락으로 한 번 쓱 하고 눌러대는 것으로 참아냈고 밤이 오면 그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박박 벽벽 긁어대며 붉은 열기를 뿜어댔다. 매일 밤 의식처럼 치러댔고 가려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온몸을 기어 다니는 것처럼 열꽃은 때때로 내 몸을 붉은 반점으로 뒤덮었고 열꽃은 지나갈 때마다 어떤 소리를 뿜어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정신없이 긁어대다가 발꿈치와 발목으로 향하는 곳에서 '깍-끼 깍' 어떤 소음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긁어대기 바빠 인지하지 못하다가 긁어도 긁어도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발목에서 시작한 간지러움은 종아리를 타고 무릎으로 올라와 굽어지는 살갓에 파묻혔다. 극도의 소양감은 머리를 쭈뼛 미치게 했고 살점을 떼어내고 싶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했다. 잠들지 못한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이불 안으로 몸을 숨긴 나의 어깨를 짚히며 차디찬 겨울바람 앞으로 데려간다. 바람이 나의 피부를 적신다. 온몸을 긁어내고 있는 가려움을 처치하기 위해 빗자루로 열꽃으로 뒤덮인 몸을 쓸어낸다. 마른 잎사귀로 만든 빗자루로 가려움을 긁어댈 때마다 소양감은 해소되었으나 그와 반대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몸을 옆으로 눕게 만든다. 나는 열기로 붉어진 손가락을 뒤로 하고 고요히 침묵을 감싸 안는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싸며 동그랗게 몸을 말아 몸의 내음을 흠뻑 맡고 나서야 비로소 열망하던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호느직한 몸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깨어난 적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점차 말을 잃어간다.

열망하던 잠을 자기 시작한 이래로 열꽃은 몸 안 곳곳에 각인되었고 표정 없는 얼굴은 성격을 만들었으며 울긋불긋한 흉터의 봉우리를 내세웠다. 흔적이 머무른 자리에 대답은 없다. 방안은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숨을 쉬고 있는 소리만 들릴 뿐 주변은 침묵으로 가득하다. 천장을 바라보며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몸 안 구석구석을 끈적이고 달라붙게 만든다. 그것은 어떤 행위를 유발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끈적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악취라도 풍길까 봐 코를 어깨에 박고 냄새를 들이마시다가 문득 행위 속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다가 기억은 다시 아래로 가라앉는다. 끈적한 몸과 흐르는 땀, 그리고 애액의 감각만이 계절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몸과 마음, 마음과 몸에서 정확한 기억은 중요하지 않다. 상

대 없이 홀로 느끼는 몸은 깊은 구멍을 판다. 기억의 잔영은 출구 없는 길을 만든다.

방문을 열고 손잡이를 꼭 쥐 채 문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한다. 침대 머리맡에 갈겨둔 일기를 다시 뒤적이며 이 작디작은 방 안에 왜 홀로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렇게 다시 일기장 꺼내며 앞에 갈겨쓴 문장을 찾는다. 알아볼 수 없는 글씨는 앞장을 넘길 때마다 달라졌고 이 일기장을 쓴 자가 나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의문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방 안에서 홀로, 정적은 어둠을 키워만 갔다. 그러다 문득 천장에서 바닥으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한 소리는 어떤 화음으로 조합되기도 하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다.

점점 그 소리를 따라 벽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만, 귀를 가까이할수록 소리는 멀어진다. 알 수 없는 이 소리의 행방을 찾고자 방 안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방을 뒤적일수록 작은방이 나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나는 다시 침대로 향한다.

눈을 떠, 다시 이곳으로.

듣고자 하는 것을 들을 때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다.

것가를 맴도는 소리는 커지기 시작하며 열꽃의 흔적을 더듬는다. 옛것을 태우기 위해 흔적을 더듬지만 아무런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려 할수록 의지는 바깥 소음에 집착하게 되고 벽을 타고 드는 소음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의문이 다시 기억을 저 먼 곳으로 떨어뜨린다.

소문의 말 앞에서 소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아무도 작은 체구를 지닌 소녀의 사실을 믿지도 듣고 싶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작은 체구를 가진, 성장기를 치르지 않은 소녀는 여름방학이 지나서야 성장기를 치를 수 있었다. 명치에 닿을 듯 말 듯 한 머리는 어느새 자라 눈을 마주하고 봉긋한 젓가슴을 내세운다. 떠오르는 기억의 장면 중 하나는 녹녹한 이불이다. 소녀에게 솟아난 웅덩이이자 고분을 품고 운명의 길을 짐쳐본 곳이다. 이불 안에서 때론 누군가와 있거나 때론 혼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꿈꿔본 곳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종종 이불의 냄새를 맡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덮어쓴 이불을 잡아당겨 무엇을 확인하기도 했다. 소녀는 그것이 죽음의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결백과 침묵을 새기려고 했던 무언의 눈빛은 소녀를 너무 빨리 늙게 만들었다. 소녀의 얼굴과 입술은 단단한 표피가 쓰인 바위처럼 아무런 것도 읽어낼 수가 없다.

잠에서 깨어 꿈으로 들어간다. 천장과 바닥, 그리고 벽을 통과해 소리가 들려온다. 벽과 벽 사이를 통과한다. 시곗바늘에 따라 물건을 쿵 쿵 옮기는 소리, 야릇한 행위를 연상케 하는 끈적이는 소리, 언성을 높여 알아들을 수 없는 평음이거나 동물의 슬픈 울음소리. 벽에 몸을 기대어 걸을수록 소리는 속도에 맞춰 들어온다.

감정 없이 메말라버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게만 느껴진다. 꿈으로 향해 점점 더 걸어

들어간다. 아득하게 멀리 앞으로 걸어갈수록 소리와 멀어지고 저 먼 곳에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뒤를 돌아 이름을 찾는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모여 천장과 바닥, 벽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복도에 수많은 방문의 문을 누군가 두드린다. 1) 글: 강정아

---

1) “내가 소홀히 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나의 불안이 내가 없는 사이에 어딘가에 길을 내서, 그 길이 다른 길 하나와 만나 막혀있던 공기가 흘러나와 생기는 소리였다.” 본 글은 유지완의 <소리의 굴>과 <모순의 굴: 사랑의 찬가>에서 밝힌 프란츠 카프카 『꿈』과 미완성 단편 『굴』의 화자의 중얼거림과 독백의 영감을 받아 유년 시절에 썼던 일기의 일부를 가져와 기록한 불안의 글이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문답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책망했고 몸을 부정하게 했다. 불안은 몸의 소음이었다. 이 글은 옛 기억을 소환하고 태움으로써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불안을 미완으로 남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